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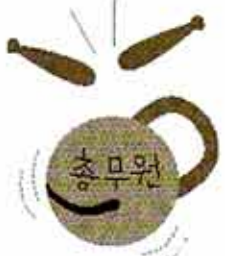
신학의 과보는 함께 서로 끌어 와서 소리가 산 울림을 일으키는 것과 같고 그림자가 형태를 따르는 것과 같아, 능히 면할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경솔히 악업을 지어 큰 괴로움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 니건자경 -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태고종 또다시 '내분'

지난 3월 28일 순천 선암사 적묵당에서는 만장의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태고종 총회의 원들이 해초스님을 새 총무원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한 것이다. 해초스님은, 3개월여 평평하게 맞섰던 두 세력이 마침내 양보와 타협으로 단일후보로 내세운 화합의 상징이었다. 중간 조계종과 함께 한국불교 종단을 이끌어가는 한 축인 태고종의 분규를 걱정하던 시선으로 바라보던 불교계도 태고종이 파국까지 가지 않고 이러한 화합의 결과를 도출한데 대해 안도하고 '역시 정통종단 답다'고 박수를 쳐주었다. 그런데 채 4개월도 못돼 전 '총무원장' 해초스님은 종단의 혼란을 야기시킨 책임자들을 즉각 해임하고 엄중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승려대회를 열어 종단이 바로 설 때까지 결사정진할 것을 결의하고 이날 모임을 전국승려대회 준비위원회로 전환시켜 기구구성과 임원선임까지 마쳤다.

태고종 총무원 측은 다음날인 11일 '타워호텔에서의 모임을 심각한 해종행위로 간주, 주동자를 색출해 중헌종법에 따라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공제회' '신협' 등 인공스님측과 연루된 각종 재정비리에 대해 공평회도 열겠다고 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 정치, 언론, 경제, 사회 등 어느 곳 하나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심각한 혼란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를 계도하고 중생들을 정토로 이끌어야 할 수행자인 스님들조차 스스로 약속한 화합을 깨고 분열사태를 초래 시끄러움을 더하니 불자들은 민망하기 그지 없다. 한쪽은 '초법적 성격의 승려'라



대회 개최로 현 집행부를 불신 임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그렇다면 '인공스님과 관련된 각종 사건을 물취내 맞붙을 놓겠다'고 한다. 이렇게 간다면 태고종은 결국 '이전투구(毘田鞠狗)' 식 싸움으로 불자들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분종(分宗)의 수순까지 밟을 수밖에 없을 지도 모른다. 4개월전 종단을 위해 양보로 화합의 손을 맞잡았던 것처럼 다시한번 '나' 보다는 '종단'과 '불교계'를 생각하는 큰 마음을 내주기를 바란다.  
 이경숙(취재 1부 무장)

### 장군 족비

- ◇전국토를 묘지화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도심 속에 '화장장'을 만들 수도 없다. 추모공원 한·반양론, 남미인이가 행정권의주의인가? (9면)
- ◇초기 불교의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라오스 불교 현장으로 가다. 그곳에서는 주지 스님을 재가신도들이 추천한다는데... (11면)
- ◇술 여름 피서는 어디로? 동해로, 서해로, 남해로? 가족과 함께 미술관으로 가서 그림 속으로 '풍경' 빠져보자. (14면)
- ◇불교계 말기 환자 간병 모임 '정토마을' 스님과 불자들, 가톨릭 공동체 '울성꽃동네' 가다. 왜? 거기에 어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23면)

# “전사법 - 문화재 보호법 개정”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문화재 사범 '발견 시점부터' 공소시효

### '문화재 지킴이' 발대식

문화재사범의 공소시효를 도난시점이 아니라 발견시점부터 기산토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수행환경 보존과 관련, 논란을 빚어 온 전통사찰보존법 개정도 추진된다.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12일 오후 경찰청에서 열린 '우리 문화재 지킴이' 발대식에서 "불교문화재 보존과 전승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이를 위해 일어선 시점부터 시작되는 문화재사범의 공소시효를, 도난문화재의 은닉사실이 발견된 시점부터 시작토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문화재청은 이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사범단속반도 따로 부서를 독립시켜 인원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85개 전통사찰 가운데 389곳이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전통사찰 보존법을 고쳐 사찰과 소장 문화재 보존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1987년 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은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지난해 사찰주변의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조계종 총무원과 경찰청은 12일 245명의 문화재 전달경찰과 교구본사 주지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문화재 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

있다. 문화관광부는 이밖에 비자정 불교 문화재 도난과 훼손방지를 위해 불교문화재 공동조사비와 사찰 방범 시스템 설치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을 비롯한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이부영 경찰청장(인터뷰 3면), 노태섭 문화재청장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ia.com

### 종단폭력 근절 대책소위 구성

#### 10일 조계종 중앙총회

조계종 중앙총회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정남)는 종단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게 될 '종단폭력 근절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14개 불교단체도 불교계 폭력문화 근절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9월 29일 하안거 해제후 개최할 예정이다. 중앙총회 호법분과위는 10일 해안사 대법관 폭력에 관한 건을 회의에 상정하고, 종단 기강 확립을 위해 종단차원에서 빠른 시일내 폭력행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징계할 것을 의결했다. 또 종단 내외의 폭력사건 근절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결의했다. 이날 구성된 종단폭력근절대책 소위원회는 위원장에 지광스님, 위원에 세영 운달 탄우 선공스님을 위촉했다. 김원우 기자 천미희 기자 mincheon@buddhapia.com

### 군승단장에 이종인 법사

만장일치 선출... "군불교위 전환작업 가속"

군승단은 9-11일 53사단 자문사 법당에서 72명이 동참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제19대 군승단장에 이종인 법사(3군사, 사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로써 군승단은 지난 2월 해체 선언이후 5개월만에 정상 궤도에 진입했으며, 군불교위위원회로 전환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인 단장은 "군승단 해체로 실추된 이미지를 하루빨리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11월말로 예정된 전역 임기동안 군중 범오집 연구 및 수정, 의식질 발간, 군법당의 통일된 행정 시스템 구축, 군승 청구 마련 등의 사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



고 피력했다. 또 이 단장은 "군승단의 선결 과제는 군불교위위원회 전환 문제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과 심도 있게 논의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집행부 선출에 이어 이날 총회에 참석한 군법사들은 군포교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포교원은 군승단과 협의해 8월중으로 군불교위원회 개정 작업에 들어가 오는 11월30일 군승의 날을 기해 군불교위원회 출범시킬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jkim1@buddhapia.com

### 수습기자 찾습니다

7월 20일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

부처님 가르침대로 세상을 보는 눈, 부처님과 중생을 이어주는 믿음의 기구구실을 최선으로 다하고 있는 현대불교의 내일을 이끌어갈 인재 찾습니다

모집 부분	모집 인원	유시자격	전형절차		
			1차	2차	3차
수습 기자	약간명	①불교신자 ②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2001년 8월 유급예정자 ③방역에 관한 사항은 1978년 1월 1일 이후 발령받은 날짜 또는 197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서류 평가	면접	면접

- 접수기간 : 2001년 7월 23일(금) 오후 5시까지
- 접수방법 : 본사 인터넷신청인 붓다뉴스(http://www.buddhanews.com) 또는 본사 카운터에 불교정보센터인 부다피아(http://www.buddhapia.com)에 접속, 안내에 따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 성적 증명서를 시험당일에 제출하십시오.
- 1차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인터넷 공고·문의전화(02-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 장엄도량을 이루는 모든 것 태영산업 이 함께 하겠습니다

**삼동결재 백일기도도량**  
기도입재: 불기 1년 1월 1일 1회

**고승초빙 대법회**  
초빙: 불기 1년 1월 1회

**대학입시 108일 기도입재**  
108-78228 (02-737-8881) 108일 기도입재

**굴법당 문수보살봉안법회**  
대법당교계종 문수사

**부처님오신날 시연사 신도회**

**행**  
선암부도 입재 영공들의 정도를 위한 베품맞이 49일 지장기도 및 7.7계

서울전지역 설치가능 (※ 설치비 별도), 지방은 우편 발송 태영산업 공장직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저희 태영산업은 단청문양 전문 현수막 공장입니다.**

농협 계좌번호 : 053-02-124814 예금주 : 이태영

**태영산업** 주소: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42-6번지  
TEL: 02-433-9544 FAX: 02-433-9543 H.P: 019-278-1119  
e-mail: ity64@korea.com 이태영 회장

※ 태영산업은 자사의 공장에서 직접 제작하므로 높은 품질과 신속한 납품이 보장됩니다

**지장사**

**일선사**  
반야사  
도량사

**관음사**  
600m

**해원사**

**이외용 촛대공이**

**인학 및 부식판**

**우리집 소식판**

**기회 시간**

**A형 간판**

**주그 외에 하는 일**  
리본, 어깨띠, 감사패  
목간판, 각종깃발  
철구조물등.....